

#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

강희순<sup>1</sup> · 이은숙<sup>2</sup>

순천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Predictive Factors for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Kang, Heesun<sup>1</sup> · Lee, Eunsoo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edict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petrations of violence while dating in university students. **Methods:**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university students with dating experiences (N=453) attending 3 regional univers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chi^2$ -test,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Prevalence rates for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perpetration were 50.1%, 32.5%, 5.5%. In adjusted analysis, compared to non-exposed students, students with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were at increased risk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ting victimization (OR=9.84,  $p<.001$ ; OR=2.31,  $p=.001$ ), had experienced emotional child abuse (OR=2.23,  $p=.001$ ) and depressive feeling (OR=2.09,  $p=.012$ ). Compared to non-exposed students, students with phys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were at increased risk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ting victimization (OR=2.44,  $p<.001$ ; OR=7.78,  $p=.001$ ), had experienced physical child abuse (OR=2.04,  $p=.001$ ), and were female (OR=2.73,  $p<.001$ ). **Conclusion:** To prevent dating violence, high-risk groups should be detected by surveying variables including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feeling. Domestic violence could be decreased through parents education and counseling from childhood.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by type of dating violence should be done.

**Key Words:** Violence, Child abuse, Depression, Student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981년 Makepeace가 대학생 5쌍 중 1쌍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데이트폭력은 사회적 건강 문제로 대두되었고[1], 장단기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연한 공중보건문제로써[2]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연구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73.3%에서 75.1%였고, 심리적 폭력은 70.2%, 신체적 폭력은 44.8%, 성적 폭력은 13.2%로 나타나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3,4].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

**주요어:** 폭력, 아동학대, 우울, 학생

**Corresponding author:** Lee, Eunsook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33 Dongjin-ro, Jinju 660-758, Korea.  
Tel: +82-55-751-3655, Fax: +82-55-751-3659, E-mail: eslee5335@gntech.ac.kr

Received: Sep 24, 2014 | Revised: Nov 19, 2014 | Accepted: Nov 22,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적, 성적 폭력과 스토킹으로 정의되고[2], 언어적 협박이나 위협부터 신체적 폭행 혹은 다른 형태의 폭력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다[5].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성적, 비신체적 폭력은 경하거나 심한 우울 및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사회적 기능수준의 저하 등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9]. 특히 데이트폭력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폭력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줄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은밀하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에 비해 더욱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10].

이처럼 데이트폭력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문 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전문가들의 인식이 결여된 이유는 조사방법론, 표본수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보고된 데이트폭력의 발생률에 차이가 많고, 대상자들이 데이트폭력을 솔직하게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다[7]. 따라서 간호사는 입원병동, 학교 및 청소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대상자를 위한 일차, 이차, 삼차 예방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11]. 일차예방 프로그램은 데이트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폭력의 징후 인식, 친밀한 관계에서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이차예방은 데이트폭력의 고위험 대상을 확인하고 안전하도록 자원들과 연결시키는 것이며, 삼차예방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법적 조언과 청구의 방법, 대상자 보호, 지지, 멘토링, 상담, 기타 자원들에 접근을 위해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11]. 따라서 간호사들은 이성교제에서 폭력의 가해나 피해 대상자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해야 하며[7],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예측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표적인 데이트폭력의 이론적 모델[12]에서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트폭력의 예측 요인을 사회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은 어떤 사람이 데이트 관계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데, 친밀한 관계에서의 호전성, 부모의 자녀 학대,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과거의 폭력 가해 경험, 성격, 자극의 민감성 등이다. 상황적 요인은 어떤 상황에서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알콜이나 약물의 사용, 상대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관계에 대한 만족, 폭력의 이득에 대한 기대 등이다[10]. 사회심리적 요인 중에서 특히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왔고,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등의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심리적 적응과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13-15] 선행연구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16]. 그러므로 과거의 가정폭력 경험이 성장 후 데이트 폭력을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재확인 과 축적된 연구결과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이 당시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과 중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황적 변인인 상대방의 공격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폭력가해의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어[1,13,17,18],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는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음주, 약물, 흡연, 자살, 성행위 등의 다양한 건강위험행동들과 데이트폭력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들[1,5,8,9,19-21]에서는 데이트폭력 경험이 다양한 건강위험행동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위험행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주의깊게 경계하고 평가해야 하는 집단으로 데이트폭력의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8].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결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인관계 폭력에 노출된 대상자를 위해 예방, 조기발견과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11].

한편 대부분의 국내 데이트폭력 연구는 상대적으로 피해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성폭력이나 신체적 폭력만을 다루거나 [13,16,19], 폭력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관련 요인을 연구하였으며[3,14,17,20], 유형별로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4,22,23]는 많지 않다. 또한 간호학에서 데이트폭력 경험, 가정폭력 경험과 다양한 건강위험행동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성적 폭력인지 비신체적 폭력인지에 따라 발생 빈도나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예방 및 중재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유형별로 확인하고, 사회학습이론에 기반한 데이트폭력 모델[12]에 근거하여 사회심리학적 변인인 부모 폭력 목격, 아동기 학대와 같은 가정폭력경험과 상황적 변인인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폭력 피해, 그리고 음주, 흡연, 약물, 우울 및 자살사고 등의 건강위험행동이 대학생의 유형별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 데이트 폭력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와 가해 정도를 유형별로 파악한다.
-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에 따른 데이트폭력 피해, 가정폭력 경험, 건강위험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예측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데이트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데이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으로, 2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수는 odds ratio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417명이 산출되었고, 10.0~20.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480명을 편의표출하였으며 이중 부모가 없거나 응답이 부실한 27명을 제외한 453명(94.3%)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설문지 내용은 데이트폭력 피해 22문항, 데이트폭력 가해 22문항, 부모간 폭력 목격 20문항, 아동기 학대 14문항, 건강 위험행동 13문항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 나이, 학년, 부모형태, 종교, 가족의 월평균소득, 군복무 등 7문항을 포함하여 총 9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보완한 연구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한 질문지를 간호학 교수 2인, 대학 성폭력상담소 간호사 1인과 상담사 1인

으로부터 각 요인을 반영하는 문항내용과 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 1) 데이트폭력 피해와 가해

배우자의 폭력 행위 빈도와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갈등대처유형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24]를 표준화한 도구[25]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협상, 성적 폭력, 상해의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며 폭력 빈도와 발생률을 함께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부부싸움'을 '나와의 다툼'으로 수정하였으며, 갈등해결방식보다는 데이트 폭력 실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CTS2 척도 중 신체적 폭력 10문항, 심리적 폭력 8문항, 성적 폭력 4문항의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폭력에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나 무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적 폭력에는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무기를 사용하여 구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먼저 데이트 상대로부터 받은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을 응답한 후,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트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1=없음', '2=일년에 한번', '3=한달에 한두번', '4=1주일에 1회 이상', '5=거의 매일'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on[25]이 보고한 도구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신체적 폭력이 .94, 심리적 폭력이 .93, 성적 폭력이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87과 .84, 심리적 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81과 .80, 성적 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80과 .72였다.

#### 2)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경험으로 부모간 폭력 목격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3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대처유형척도(CTS2)[24]를 표준화한 도구[25] 중 경미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1=없음'에서 '5=거의 매일'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폭력을 많이 목격함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96이었다. 아동기 학대경험은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PCCTS)[26]에서 방임에 관련된 부분과 한국적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을 제외하고 수정한 도구[23]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 5문항과 신체적 학대 9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점수는 '1=없음'에서 '5=거의 매일'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에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hoi[23]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정서적 학대 .78, 신체적 학대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80, .81이었다.

### 3) 건강위험행동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YRBS) 도구[27]와 YRBS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청소년 건강 위험행동 도구[28]에서 우울감 및 자살 관련 4문항(지난 2주 동안 슬픔이나 절망감, 1년 동안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 음주행위 4문항(첫 음주시기, 음주빈도, 음주량, 학교에서 음주빈도), 흡연행위 4문항(흡연여부, 첫 흡연시기, 흡연 빈도, 흡연량), 기타 약물사용 행위 1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한 결과 .63이었기 때문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살시도와 흡연여부 항목을 제거하였고, 최종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71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3-10-007-001)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2013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출하였다. 교양교과목 수업 종료 후 연구보조원이 직접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학생 개개인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이 끝난 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문구류를 선물로 제공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데이트폭력 가해, 데이트폭력 피해, 가정폭력 경험, 건강위험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데이트폭력 피해, 가정폭력 경험, 건강위험행동의 차이는  $\chi^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경험은 발생 빈도가

낮아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 부모 폭력 목격 경험, 아동기 학대경험은 이항 변수('1=없음'은 비경험 집단, 나머지는 경험 집단)로 전환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64~0.93, 분산확대인자(VIF)의 범위는 1.08~1.5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은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전진 wald 방법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고, 통계량은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으로 나타내었다. 데이트폭력을 유형별로 심리적 가해, 신체적 가해, 성적 가해로 분류하여 종속변수로 하였으나 성적 가해 경험은 event per variables를 확인한 결과 1.78 (25/14)로 10을 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연구결과

### 1. 데이트폭력 가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453명으로 남학생이 48.8%, 여학생이 51.2%였고,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부모형태는 양친부모가 87.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종교는 유교가 39.1%, 무교가 60.9%였다. 남학생 중 군대를 다녀온 경우는 46.2%로 다녀오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였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50~350만원 수준이 31.5%로 가장 많았다.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이었고, 연령, 부모형태, 종교, 군대, 가계경제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은 여학생 55.9%로 남학생 44.1%보다 많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chi^2=4.08$ ,  $p=.049$ ),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도 여학생 62.6%로 남학생 37.4%보다 많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1.26$ ,  $p=.001$ )(Table 1).

### 2. 데이트폭력 경험 빈도

본 연구대상자 중 데이트 시 한차례 이상 폭력을 당한 경험률은 60.9%였고, 이중 심리적 폭력 피해는 53%, 신체적 폭력 피해는 38.2%, 성적 폭력 피해는 7.3%였다. 데이트 시 한차례 이상 폭력을 가한 경험률은 대상자의 55.8%였고, 이중 심리적 폭력 가해는 50.1%, 신체적 폭력 가해는 32.5%, 성적 폭력 가해는 5.5%가 경험하였다(Table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Psychological DVP		$\chi^2$ or t (p)	Physical DVP		$\chi^2$ or t (p)
			No (n=226)	Yes (n=227)		No (n=306)	Yes (n=147)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221 (48.8)	121 (53.5)	100 (44.1)	4.08	166 (54.2)	55 (37.4)	11.26
	Female	232 (51.2)	105 (46.5)	127 (55.9)	(.049)	140 (45.8)	92 (62.6)	(.001)
Age (year)		21.4±2.5	21.3±2.4	21.4±2.7	-0.47 (.636)	21.5±2.6	21.2±2.3	1.12 (.260)
Parental types	Both-parents	395 (87.2)	204 (90.3)	191 (84.1)	4.88	274 (89.5)	121 (82.3)	4.97
	Step-parents	18 (4.0)	5 (2.2)	13 (5.7)	(.087)	9 (2.9)	9 (6.1)	(.083)
	Single-parent	40 (8.8)	17 (7.5)	23 (10.2)		23 (7.5)	17 (11.6)	
Religion	Yes	177 (39.1)	84 (37.2)	93 (41.0)	0.69	127 (41.5)	50 (34.0)	2.34
	No	276 (60.9)	142 (62.8)	134 (59.0)	(.441)	179 (58.5)	97 (66.0)	(.150)
Military service (male)	Yes	102 (46.2)	53 (43.8)	49 (49.0)	0.59	75 (45.2)	27 (49.1)	2.54
	No	119 (53.8)	68 (56.2)	51 (51.0)	(.498)	91 (54.8)	28 (50.9)	(.642)
Monthly income (10,000 won)	< 150	42 (9.5)	21 (9.4)	21 (9.5)	2.35	31 (10.3)	11 (7.7)	0.13
	150~250	123 (27.7)	59 (26.3)	64 (29.1)	(.671)	84 (27.9)	39 (27.7)	(.537)
	250~350	140 (31.5)	77 (34.4)	63 (28.6)		91 (30.2)	49 (34.3)	
	350~450	72 (16.2)	37 (16.5)	35 (15.9)		53 (17.6)	19 (13.3)	
	> 450	67 (15.1)	30 (13.4)	37 (16.8)		42 (14.0)	25 (17.5)	

DVP=Dating violence perpetration.

### 3. 데이트폭력 가해에 따른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가정폭력 경험, 건강위험행동의 차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따른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심리적 폭력 가해 경험군은 비경험군에 비해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chi^2=148.54$ ,  $p<.001$ ,  $\chi^2=63.83$ ,  $p<.001$ ,  $\chi^2=17.18$ ,  $p<.001$ ),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군도 비경험군에 비해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52.74$ ,  $p<.001$ ,  $\chi^2=106.06$ ,  $p<.001$ ,  $\chi^2=19.01$ ,  $p<.001$ ).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은 아동기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목격 경험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폭력 가해 경험군은 비경험군에 비해 아동기에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chi^2=30.59$ ,  $p<.001$ ,  $\chi^2=21.81$ ,  $p<.001$ ),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도 더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4.99$ ,  $p<.001$ ).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군도 비경험군에 비해 아동기에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chi^2=23.24$ ,  $p<.001$ ,  $\chi^2=20.13$ ,  $p<.001$ ), 부모간 폭력을 더 많이 목격하였다( $\chi^2=14.35$ ,  $p<.001$ ). 결국 데이트폭력 가해는 가정폭력경험이 있

는 대상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가해에 따른 건강위험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심리적 폭력 가해 경험군은 비경험군에 비해 지난 2주 동안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chi^2=16.41$ ,  $p<.001$ ), 1년 동안 자살생각이나 계획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chi^2=8.07$ ,  $p=.006$ ).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군은 비경험군에 비해 지난 2주 동안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68$ ,  $p=.004$ ). 그러나 심리적,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에 따른 음주, 흡연, 약물 사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 4. 심리적 ·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

데이트폭력 가해의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데이트시 심리적 폭력을 가할 경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46배( $p=.044$ ) 높았고, 심리적 폭력 피해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13.7배( $p<.001$ ),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5.2배( $p<.001$ ), 성적 폭력 피해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6.22배( $p<.001$ ),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99배( $p<.001$ ),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55배

**Table 2.** Comparison of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s, Family Violence and Health Risk Behaviors by Dating Violence Perpetrations (*N*=453)

Variables	Categories	Total	Psychological DVP		$\chi^2$ or t ( <i>p</i> )	Physical DVP		$\chi^2$ or t ( <i>p</i> )
			No (n=226)	Yes (n=227)		No (n=306)	Yes (n=147)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Psychological DVV	No	213 (47.0)	171 (75.7)	42 (18.5)	148.54 ( <i>&lt;.001</i> )	180 (58.8)	33 (22.4)	52.74 ( <i>&lt;.001</i> )
	Yes	240 (53.0)	55 (24.3)	185 (81.5)		126 (41.2)	114 (77.6)	
Physical DVV	No	280 (61.8)	181 (80.1)	99 (43.6)	63.83 ( <i>&lt;.001</i> )	239 (78.1)	41 (27.9)	106.06 ( <i>&lt;.001</i> )
	Yes	173 (38.2)	45 (19.9)	128 (56.4)		67 (21.9)	106 (72.1)	
Sexual DVV	No	420 (92.7)	221 (97.8)	199 (87.7)	17.18 ( <i>&lt;.001</i> )	295 (96.4)	125 (15.0)	19.01 ( <i>&lt;.001</i> )
	Yes	33 (7.3)	5 (2.2)	28 (12.3)		11 (3.6)	22 (85.0)	
Emotional child abuse	No	177 (39.1)	117 (51.8)	60 (26.4)	30.59 ( <i>&lt;.001</i> )	143 (46.7)	34 (23.1)	23.24 ( <i>&lt;.001</i> )
	Yes	276 (60.9)	109 (48.2)	167 (73.6)		163 (53.5)	113 (76.9)	
Physical child abuse	No	291 (64.2)	169 (74.8)	122 (53.7)	21.81 ( <i>&lt;.001</i> )	218 (71.2)	73 (49.7)	20.13 ( <i>&lt;.001</i> )
	Yes	162 (35.8)	57 (25.2)	105 (46.3)		88 (28.8)	74 (50.3)	
Parent's marital violence witness	No	348 (76.8)	191 (84.9)	157 (69.1)	14.99 ( <i>&lt;.001</i> )	251 (92.0)	97 (66.0)	14.35 ( <i>&lt;.001</i> )
	Yes	105 (23.2)	35 (15.5)	70 (30.8)		55 (18.0)	50 (34.0)	
Felt sad or hopeless (past 2weeks)	No	347 (76.9)	192 (85.0)	155 (68.9)	16.41 ( <i>&lt;.001</i> )	247 (81.0)	100 (68.5)	8.68 (.004)
	Yes	106 (23.1)	34 (15.0)	72 (31.1)		58 (19.0)	46 (31.5)	
Suicide idea or intention (past 1yr)	No	409 (92.9)	213 (94.2)	196 (86.3)	8.07 (.006)	279 (91.2)	130 (88.4)	0.85 (.398)
	Yes	44 (7.1)	13 (5.8)	31 (13.7)		27 (8.8)	17 (11.6)	
Alcohol use		3.6±0.96	3.6±1.03	3.6±0.88	0.44 (.662)	3.6±0.98	3.5±0.92	0.80 (.423)
Cigarette use		3.2±2.26	3.0±2.25	3.4±2.28	-1.55 (.122)	3.2±2.28	3.2±2.25	0.09 (.924)
Drug use		1.0±0.33	1.0±0.36	1.0±0.30	-0.15 (.884)	1.0±0.32	1.1±0.37	-0.75 (.453)

DVP=Dating violence perpetration; DVV=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 $p<.001$ ), 부모간 폭력목격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43배( $p<.001$ ) 높았다. 또한 우울감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55배( $p<.001$ ), 자살생각과 계획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59배( $p=.006$ ) 심리적 폭력을 가할 경향이 높았다. 신체적 데이트폭력을 가할 경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98배( $p=.001$ ) 높았고, 심리적 폭력 피해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4.94배( $p<.001$ ),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9.22배( $p<.001$ ), 성적 폭력 피해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4.72배( $p<.001$ ) 높았으며,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35배( $p<.001$ ),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92배( $p<.001$ ), 부모간 폭력목격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51배( $p<.001$ ) 높았다. 또한 우울감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1.96배( $p=.004$ )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경향이 높았다.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과 변수선택 및 제거의 기준인 유의확률 .25 이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은 심리적 데이트폭력 피해, 신체적 데이트폭력 피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 우울감이었다. 즉 데이트 시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파트너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할 경향이 각각 9.84배( $CI=6.06\sim 15.99$ ,  $p<.001$ ), 2.31배( $CI=1.40\sim 3.83$ ,  $p=.001$ ) 높았고,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대상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데이트 시 심리적 폭력을 가할 경향이 2.23배( $CI=1.36\sim 3.65$ ,  $p=.001$ ) 높았고,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데이트 시 심리적 폭력의 경향이 2.09배( $CI=1.18\sim 3.18$ ,  $p=.012$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은 심리적 데이트폭력 피해, 신체적 데이트폭력 피해, 아동기 신

체적 확대와 성이었다. 즉 데이트 시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경향이 각각 2.44배(CI=1.45~4.11,  $p=.001$ ), 7.78배(CI=4.66~12.97,  $p<.001$ ) 높고, 아동기에 신체적 확대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데이트 시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경향이 각각 2.04배(CI=1.27~3.30,  $p=.003$ ), 2.73배(CI=1.66~4.50,  $p<.001$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가해 모형과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 모형의 -2Log likelihood는 435.58, 421.71로 유의확률이 모두 .001보다 작

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hosmer lowshow 검증결과, 두 모형의 유의확률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였고, 데이트폭력 가해의 설명력(negelkerke  $R^2$ )은 심리적 폭력가해 46%, 신체적 폭력가해 39%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실태를 확인하고,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가정폭력경험, 건강위험행동 등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Table 3.** Predictive Factors of Dating Violence Perpetrations by Univariate Analysis

(N=453)

Variables (ref.)	Psychological DVP			Physical DVP		
	cOR	95% CI	<i>p</i>	cOR	95% CI	<i>p</i>
Gender (ref.:male)	1.46	1.01~2.12	.044	1.98	1.33~2.97	.001
Psychological DVV (ref.:no)	13.70	8.71~21.53	< .001	4.94	3.15~7.74	< .001
Physical DVV (ref.:no)	5.20	3.42~7.91	< .001	9.22	5.88~14.48	< .001
Sexual DVV (ref.:no)	6.22	2.36~16.42	< .001	4.72	2.22~10.03	< .001
Emotional Child abuse (ref.:no)	2.99	2.02~4.43	< .001	2.35	1.50~3.69	< .001
Physical Child abuse (ref.:no)	2.55	1.71~3.80	< .001	2.92	1.87~4.55	< .001
Parent's marital violence witness (ref.:no)	2.43	1.54~3.84	< .001	2.51	1.67~3.77	< .001
Felt sad or hopeless (past 2weeks) (ref.:no)	2.55	1.61~4.04	< .001	1.96	1.25~3.08	.004
Suicide idea or intention (past 1yr) (ref.:no)	2.59	1.32~5.09	.006	1.35	0.71~2.57	.358
Alcohol use	0.96	0.79~1.16	.661	0.92	0.75~1.13	.422
Cigarette use	1.07	0.98~1.16	.122	0.99	0.91~1.09	.923
Drug use (ref.:no)	0.49	0.12~1.98	.319	0.38	0.10~1.42	.148

DVP=Dating violence perpetration; DVV=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ref.=reference; cOR=Crude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Table 4.** Predictive Factors of Dating Violence Perpetrations by Multivariate Analysis

(N=453)

Variables	Categories (ref.)	aOR	95% CI	<i>p</i>	$\chi^2$	-2Log likelihood	negelkerke $R^2$	hosmer lowshow
Psychological DVP	Psychological DVV (ref.:no)	9.84	6.06~15.99	< .001	189.63	435.58	0.46	0.99
	Physical DVV (ref.:no)	2.31	1.40~3.83	.001				
	Emotional Child abuse (ref.:no)	2.23	1.36~3.65	.001				
	Felt sad or hopeless (ref.:no)	2.09	1.18~3.71	.012				
	(Constant)	0.11						
Physical DVP	Psychological DVV (ref.:no)	2.44	1.45~4.11	.001	146.23	421.71	0.39	0.83
	Physical DVV (ref.:no)	7.78	4.66~12.97	< .001				
	Physical Child abuse (ref.:no)	2.04	1.27~3.30	.003				
	Gender (ref.:male)	2.73	1.66~4.50	< .001				
	(Constant)	0.05						

DVP=Dating violence perpetration; DVV=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Ref.=Reference; aOR=Adjusted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신체적 유형별 데이트폭력 가해의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데이트폭력 경험을 분석한 결과, 피해경험은 60.9%, 가해경험은 55.8%로 과반수 이상이 지난 1년간 어떤 형태로든 한 번 이상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여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폭력에 비해 신체적, 성적 폭력의 피해수준이 심각하지만,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의 전조로 볼 수 있다는 연구[29]나 이성교제하는 대학생에게서 심리적 폭력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3,4,21,22]에 비추어볼 때,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시 성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외에 심리적 폭력을 포함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유형별 데이트폭력 가해의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단변량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데이트폭력과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는 공통적으로 여학생인 경우,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경우, 아동기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 경험에 있는 경우, 우울감이 있는 경우에 발생 경향이 증가하였고, 반면 자살생각과 계획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경향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성차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신체적 폭력의 가해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1,14,15,20]을 지지한 반면, 심리적 폭력은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신체적 폭력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4,21]나 신체적 폭력은 성차가 없고, 심리적 폭력이 여성에게 높게 나타난 연구[22]도 있어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의 데이트폭력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고[1], 안전을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적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며[18], 남성에 비해 폭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적어 폭력 경험을 훨씬 편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15],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연구에서는 폭력의 경험이나 빈도 이외에 폭력의 심각성과 특성을 고려하고, 개별면접이나 질적 연구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의 강력한 예측 요인은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었다. 심리적 폭력 가해의 가장 큰 예측요인은 심리적 폭력 피해 경험으로 비경험자에 비해 발생가능성이

13.70배 높았고, 신체적 폭력 가해의 가장 큰 예측요인은 신체적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으로 비경험자보다 9.22배 높았다. 결국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상황적 변인들 중에서 파트너의 공격 행동, 즉 데이트폭력 피해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데이트 시 폭력을 당한 경험자가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1,13,17], 데이트 관계에서 심리적 피해는 데이트 상대에게로 심리적 공격을 예측한다는 연구[18]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기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 경험과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트 시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가해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학습한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였다. 이는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나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3,14,23]와 일맥상통하고, 특히 아동학대가 신체적 및 심리적 데이트폭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15]와 일치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을 학습된 행동으로 보는데,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행동을 직접 경험한 아동은 어릴 적부터 공격성을 학습하고, 공격성이 친밀한 관계의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데이트 파트너와 상호작용할 때 공격적 행동에 더 관여하기 쉽다고 설명한다[1]. 이처럼 아동기에 경험한 가정폭력 경험이 단기간의 영향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이 된 대학생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해 어린시절부터 가정에서의 폭력경험을 감소시키고,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해졌다.

본 연구에서 우울감은 심리적, 신체적 데이트폭력을 모두 예측하는 위험요인이었다. 지난 10년간 실시된 청년기 데이트폭력 가해 연구들에 대한 고찰[6]에서도 특히 여성의 경우 폭력가해가 우울과 같은 내재적 증상들과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22]에서도 우울증이 신체적 폭력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자살생각과 계획은 심리적 폭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데이트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모두 자살사고와 시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9]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결국 우울, 자살 등의 정신건강문제는 데이트폭력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우울 및 자살 위험 대상자를 선별하여 우울 중재를 포함한 심리적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차 예방활동으로써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음주는 데이트폭력 가해와 관련성이 없었다. 음주와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 중에는 음주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가 발견된 연구[1,5,20,21]도 있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2]도 있어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음주 행동과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21]에서는 음주가 남녀 모두에서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가해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었고, 다른 연구[1]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의 알코올 사용이 파트너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해의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질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반면 국내 연구[22]에서 알코올 사용(음주횟수)은 대학생의 이성교제 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각 연구마다 다양한 음주변인을 사용하였고, 데이트폭력의 유형도 각기 다르게 분석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음주는 지난 1달간의 알코올 사용 양과 빈도, 음주 시작 연령을 포함하였는데, 데이트폭력이 일반적 음주 양상보다는 갈등 상황에서의 음주와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갈등 상황에서 음주나 문제음주 변인들과 유형별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알콜과 데이트폭력 가해 연구들에서는 분노나 분노기질의 잠재적 효과를 제시하였는데[20,30], 알콜사용은 분노가 높을 때에 심리적, 신체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나, 분노가 낮을 때에는 공격성과 관계가 없었고, 마리아나 사용 역시 분노가 높을 때 심리적 공격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서 음주, 흡연, 약물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연구할 때에는 분노기질과 같은 다양한 조절 및 매개 변수를 고려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최종적으로 데이트폭력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결과, 심리적 폭력 가해와 신체적 폭력 가해를 동시에 예측하는 요인은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심리적, 신체적 폭력 피해였다. 이는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상관성이 높고[23],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94%가 심리적 폭력을 함께 보고한 연구[2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심리적 폭력 가해와 신체적 폭력 가해를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각각 심리적 폭력 피해와 신체적 폭력 피해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적 변인인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써 폭력이 학습되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데이트 성폭력 피해는 예측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대상자 중 성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하고, 추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데이트시 심리적 폭력 가해의 예측요인이었고,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은 신체적 폭력 가해의 예측요인이었다. 즉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따라 같은 형태의 폭력을 학습하여 전수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행동을 어떻게 배우고 보상받았는지를 파악하여 비폭력적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주며 비합리적인 사고패턴을 변화시키는 인지적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우울감은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예측요인이었기 때문에, 우울정도를 확인하여 심리적 폭력 잠재군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의 표현과 조절 방법을 다루는 우울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로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예측 요인은 성이었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데이트시 신체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남녀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별에 따라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 분야에서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요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간호사가 건강전문가로서 학교 및 지역사회 실무현장에서 데이트폭력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고, 상담하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데이트폭력의 유형별로 위험요인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중재 시 폭력 유형에 따른 예방과 중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및 직장인으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청소년이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형별 데이트폭력의 피해와 가해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는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종단적 설계에 의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적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표본수가 적어 예측요인을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표본수를 확대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와 데이트폭력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의 예측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대학생의 데이트 관계에서 심리적 폭력 가해의 예측 요인은 심리적 폭력 피해, 신체적 폭력 피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우울감이었고, 신체적 폭력 가해의 예측 요인은 심리적 폭력 피해, 신체적 폭력 피해, 아동기 신체적 학대경험과 성이었으며, 가장 설명력이 높은 예측변인은 파트너로부터의 심리적, 신체적 폭력 피해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나 우울 및 자살과 같은 요인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하여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동기부터 부모 교육 및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인의 대체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데이트폭력 유형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자들에게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교육과 인간관계 훈련을 포함하고, 우울 대상자를 선별하여 우울 중재를 포함한 심리적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Luthra R, Gidycz CA.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 Interpers Violence*. 2006;21(6):717-31.  
<http://dx.doi.org/10.1177/0886260506287312>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What is dating violence? [internet]. United States, CDC. 2013. [2013 September 7]. Available from:  
[http://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teen\\_dating\\_violence.html](http://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teen_dating_violence.html).
- Kim DK.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nd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Korean J Youth Stud*. 2009;16(6):135-59.
- Kang HK. The myth of family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Youth Stud*. 2007;14(6):21-41.
- DuRant R, Champion H, Wolfson M, Omli M, McCoy T, D'Agostino RB Jr, et al. Date fighting experiences among college students: are they associated with other health-risk behaviors?. *J Am Coll Health*. 2007;55(5):291-6.  
<http://dx.doi.org/10.3200/jach.55.5.291-299>
- Dardis CM, Dixon KJ, Edwards KM, Turchik JA.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Abuse*. 2014;Jan 10. Epub ahead of print.  
<http://dx.doi.org/10.1177/1524838013517559>
- Betz CL. Teen dating violence: an unrecognized health care need. *J Pediatr Nurs*. 2007;22(6):427-9.  
<http://dx.doi.org/10.1016/j.pedn.2007.10.001>
- Chase KA, Treboux D, O'leary D. Characteristics of high-risk adolescents' dating violence. *J Interpers Violence*. 2002;17(1):33-49. <http://dx.doi.org/10.1177/0886260502017001003>
- Bossarte RM, Simon TR, Swahn MH. Clustering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eer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 *J Interpers Violence*. 2008;23(6):815-33.  
<http://dx.doi.org/10.1177/0886260507313950>
- Suh KH. A review of researches on violence in the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 *Korean J Psychol: Health*. 2009;14(4):699-727.
- Herrman JW. There's a fine line. adolescent dating violence and prevention. *Paediatr Nurs*. 2009;35(3):164-70.
- Riggs D, O'Leary K.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Pirog-Good MA, Stets JE editor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Pub; 1989. p. 53-71.
- Kang HS, Lee ES. Factors associated with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Educ Promot*. 2010;27(3):75-84.
- Lee JY, Oh KJ. The effect of witnessing marital violence in childhood on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Psychol: Women*. 2007;12(4):433-50.
- Gover AR, Kaukinen C, Fox KA.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 Interpers Violence*. 2008;23(12):1667-93.  
<http://dx.doi.org/10.1177/0886260508314330>
- Shin HS. Predictors of physical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report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07;19:55-75.
- Suh KH. The role of anger and variables from social learning theory in inflicting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Korean J Psychol: Cul Soc Issues*. 2002;8(2):1-15.
- Harned MS. A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markers for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J Interpers Violence*. 2002;17(11):1179-97. <http://dx.doi.org/10.1177/088626002237401>
- Park HN, Jang S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witness and dating sexual violence.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2;40(1):149-76.
- Yang NM. The mediating role of trait-anger on the relation-

- ships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Couns Psychoth*. 2009;10(4):2539-54.
21. Shook NJ, Gerrity DA, Jurich J, Segrist AE.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verbally and physically abusive couples. *J Fam Violence*. 2000;15(1):1-22.  
<http://dx.doi.org/10.1023/A:1007532718917>
  22. Jang HS, Cho HG.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01;8:197-204.
  23. Choi JH.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of child on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5.
  24. Straus MA, Hamby SL, Boney-McCoy S, Sugarman DB.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 Fam Issues*. 1996;17(3):283-316.  
<http://dx.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25. Sohn JY. Focused on husband's conflict tactics and wife abuse behaviors: a study about the property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on Korean couples. *J Family Relations*. 1997;2:51-87.
  26. Straus MA.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Negl*. 1998;22(4):249-70.  
[http://dx.doi.org/10.1016/s0145-2134\(97\)00174-9](http://dx.doi.org/10.1016/s0145-2134(97)00174-9)
  2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National youth risk behavior survey[internet]. United States. CDC. 2013 [2013 September 7]. Available from:  
[http://www.cdc.gov/healthyyouth/yrbs/pdf/questionnaire/2013\\_xxxh\\_questionnaire.pdf](http://www.cdc.gov/healthyyouth/yrbs/pdf/questionnaire/2013_xxxh_questionnaire.pdf)
  28. Kim JY.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he Korean version of youth risk behavior survey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6.
  29. Kasian M, Painter SL. Frequency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abuse in a dating population. *J Interpers Violence*. 1992;7(3):350-64. <http://dx.doi.org/10.1177/088626092007003005>
  30. Shorey RC, Stuart GL, Moore TM, McNulty JK.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marijuana, angry affect,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 daily diary study with female college students. *Psychol Addict Behav*. 2014;28(2):516-23.  
<http://dx.doi.org/10.1037/a0034648>